

도 농생명 연구협의체 활성화 모색

오늘 워크숍 개최... 연구기획협력분과 → 공동기획위원회로 변경·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교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한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된 '전라북도 농생명 연구협의체'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위원 재위촉 및 운영계획 재수립 등에 나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생명 연구협의체' 협력 강화 워크숍이 24개의 관련기관에서 72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7일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발굴·기획을 위해 당초 연구기획협력분과

가 공동기획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위원 재위촉식을 가져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를 이뤘던 것을 개편해 농생명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대폭 교체된다. 이는 협의체의 참여율을 높여 기술정보 교류 및 공공협력과제 발굴에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다.

앞서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는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실리코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 관련된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전북도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2014년 12

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협의체 내 3개 분과에서 각각 1억~1.5억원 규모의 공동R&D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체중조절용 쌀 소재 조제식품이 개발되고 도내 로컬푸드 우수사례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대중국 맞춤형 유기농 쌀과자 수출을 위한 시장분석 및 제품화 연구를 통해 올해 첫 쌀과자가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공동기획위원회를 통해 도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과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모하고 3개 분과는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협력과제를 발굴·기획해 도내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돼 우리 도가 이를 기반으로 농산업을 위한 실리코밸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연구협의체 참여기관에서는 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수 기자

도레이 PPS 군산공장 준공

6일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업단지 군산공장에서 국내 최초 원료에서부터 수지, 컴파운드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PPS(Poly 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설파이드) 군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회장,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 스즈키히데오 주한 일본대사,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시·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TORAY)가 6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PPS 군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한국 내 PPS의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즈키 주한 일본대사, 문동신 군산시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본 도레이사의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4,951㎡(6만2천평)의 공장에서 거행되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1호로 군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풍력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 지역인재 고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레이 첨단소재는 세계 PPS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PPS의 국내 생산으로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산공장은 일관 생산체제로 원료부터 완제품을 한 자리에서 생산할 수 있어 품질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공장 대비 10%이상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 축산위생연구소 명칭 동물위생시험소로 바뀐다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명칭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동물위생시험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오는 8일부터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된다.

/정영수 기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적합' 판정

'항공레저 시범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 항공레저센터 건립·내년부터 기반조성

초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의 항공레저를 내년부터 새만금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이하 항공레저 시범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의 후속 용역으로 당초 경제 타당성(B/C 1.36)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지난 3월 항공레저 시범사업 용역이 추진됐고 이번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새만금청은 "이번 용역은 중장기적 기본구상 만으로는 즉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새만금 입지의 장점과 여건을 고려해 우선 추진 가능한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36만㎡) 내 총사업비 640억 규모의 항공레저센터가 건립되고 항공레저 기반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진 가능한 항공레저 시범종목으로는 경제적 요소 및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해 초경량·경량 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드론 등이 도출됐다.

용역은 오는 9월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용역에서 항공레저 종목 발굴과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고, 정부의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초경량 및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새만금은 차세대 항공레포츠 활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수 기자

김승환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검찰,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이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운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 행위를 했다"면서 "단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기재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용주 기자

완주군, 장애인등급제 2차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완주군이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장애인등급제 2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완주군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관내 400여명의 신규 및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등급제 상관이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업내용은 일상생활을 위한 '주간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야간 순회서비스', 시각장애인이 보행훈련 등 장애등록 후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검색하는 대신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보제공, 맞춤형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 말까지 4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사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진행으로 완주군은 2017년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대비하여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오늘 21개 팀 발표

전북도가 7일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7일 '제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진행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각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우

수사례를 발굴·시상해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테스트는 1차 평가 등을 통과한 21개 팀(마을)이 마을발전계획 및 성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은 다음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